이덕일의 '역사의 창'

단재 신채호는 어디 있는가?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를 들라면 대부분 단재 신채호(申采浩:1880~1936) 선생을 꼽을 것이다. 김부식을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사대주의자'란 부정적 인식도 함께 따라다닌다. 반면 단재에게는 조국의 자주독립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일생을 바쳤다는 인식이 있다.

단재는 독립운동 자금을 구하려고 1928년 5월 일제가 점령한 대만 기륭항(基隆港)에 갔다가 체포되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여순(旅順)감옥에 투옥되었다가 1936년 2월 뇌일혈로 순국했다. 그의 유해가 경성역에 도착하자 지인들은 일제의 감시를 무릅쓰고 모여들었다. 민세 안재홍(安在鴻:1891~1965)은 "살아서 산하를 등졌고, 죽어서 고원(古園)에 되돌아오니 인세(人世)의 비극이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역시 역사학을 공부했던 안재홍은 신채호에 대해 '조선사학의 선구자'라고 평했다.

춘곡 원세훈(元世勳:1887~1959) 역시 단재를 '현 조선에서 유일한 사학가'라고 평했다. 희대의 천재였으나 잘못된 시대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신채호. 역사학자 신채호가 걸었던 '인세의 비극'은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과 동시에 '민족의 희망'으로 부활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히 한국 역사학계에서 그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남한의 역사학계를 장악한 이른바 강단 사학은 늘 총론으로 "식민 사학을 극복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현 조선에서 유일한 사학가'라는 평가를 받았던 단재 신채호의 역사학은 강단 사학의 정설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수를 헬 수 없는 수많은 대학 사학과 중에서 '단재 신채호의 역사학'을 가르치는 사학과는 한 군데도 없다. 총론으로는 늘 "식민 사학을 극복했다"고 말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면 '식민 사학'을 되풀이하는 것이 광복 75년째 계속되는 풍경이다.

국가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학진흥사업단이란 것이 있다. 연간 수백억 원의 국고를 쓰는 이 사업단의 단장이란 사람이 과거 공개 학술대회 석상에서 '단재 신채호는 세 자로 말하면 또라이, 네 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른 분야 같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시끄러웠겠지만 남한 역사학계는 이 망언에도 조용하기만 했다. 시진핑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에도 남한 강단사학계가 일제히 침묵했던 것은 이 러한 구조 때문이다.

그럼 북한의 역사학계는 단재 신채호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을까? 북한의 역사 전문 학술지였던 '력사제문제'에 정현이라는 역사학자가 17호(1950년)에 '한사군고'(漢四郡考)를 실었다. 그는 한사군은 지금의 북한 지역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다면서 "(신채호는) 패수를 지금 (요녕성) 해성현에 있는 헌우락(軒芋樂)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탁월한 고찰 방법이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남한의 강단 사학계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선총독부의 학설을 따라서 한사군이 북한에 있었다고 우기고 있다. 북한 역사학자들은 단재 신채호와 국어학자였던 약연 김두봉(金枓奉:1889~1960)의 영향을 받아서 학설을 정립했다고 고백한다. 한데 남한 강단 사학자들은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수회에서 일본인 스승들의 비위를 맞추며 자국사를 난도질했던 두계 이병도(1896~1989)와 치암 신석호(1904~1981)의 학설을 종교 교리처럼 신봉하고 있다.

이른바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은 물론 언필칭 진보라고 자칭하는 역사학자들도 이 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져서 두 손 모아 칭송하기에 바쁘다. 그러니 정권 교체와 더불어 친일 역사학 해석 체계도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늘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만큼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각계에 구축한 식민 사학 카르텔이 막강한 것이다. 최근에는 임나일본부설까지 끌어들여 퍼뜨리는 중이다.

우리 역사는 늘 민중들이 바꿔 왔다. 이 친일 식민 사학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역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 장삼이사들 즉 민중들이 깨어나서 외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기 고

'참조기 스마트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김준성
영광군수

영광은 누구나 알고 있듯 굴비의 고장이다. 지역의 핵심 자원으로 영광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한 명품이다. 따라서 관련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더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영광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굴비의 원재료인 참조기를 매년 일정량 이상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자연산 참조기 자원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조기 어획량은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3만 3000t에서 2019년 2만 5000t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영광 굴비 생산량도 2014년 1만 9000t에서 2018년 1만 6000t으로 약 16%가 감소했다. 관내 460개 굴비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액도 3240억 원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불법 어업과 어구 기술의 발달로 인한 남획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해양 오염 등 해양 환경의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참조기 양식'밖에 없었다.

영광군은 2016년 '굴비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21년까지 117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참조기 해상 가두리 양식을 추진한데 이어 참조기 및 부세 양식장 확충 등 여섯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참조기 양식을 위해 2017년부터 참조기 수정란 구입비와 어린 종자 입식비 등으로 14억 8000만 원을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에 지원해 해상 가두리, 육상 수조식, 축제식 등에 대한 기술 노하우와 데이터를 축적중이다.

영광군은 4년간의 노력으로 참조기 양식이 가진 장점을 터득할 수 있었다. 먼저 참조기는 조피볼락, 참돔 등과 달리 34도의 고수온과 질병에 강해 아열대 기후 변화에 대응한 대체 품목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새우·전어 등과 함께 6~7개월 단기간에 출하가 가능하다. 지난 2019년 5월 해상 가두리와 육상 수조식 양식장에 입식한지 6개월만인 11월 크기 21㎝, 무게 100g까지 성장시켜 52만 미(尾) 19.7t을 출하하기도 했다. 세 번째 넙치·우럭 등과는 달리 냉동 보관이 가능해 가격 및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영광군은 지금까지 추진 성과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도전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영광군은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3년간 400억 원을 투자, 자동화·지능화된 스마트양식 시범 단지와 배후 부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배후 부지에는 시범 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 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업체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 양식 시범 단지는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수온·염분·수소이온지수(pH) 등 실시간 수질 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시스템, 수질 관리·자동화 시스템(RAS), 빅 데이터·인공 지능(AI)에 기반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구현하는 양식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시장 수요 예측 및 생산량 자율 조절 등 최적의 양식 경영 시스템도 포함된다. 4차 산업 혁명·경영·수산 등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의 융복합 결정체인 셈이다.

노동 집약적 재래식 1차 양식 산업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에 수산물 가공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생산 위주에서 가공과 유통의 중심지로 바꾸어 수산업을 선순환 경제 구조로 만들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 영광군의 목표다. 이미 전문 양식 업체, 굴비 유통·가공 업체, 정보통신·에너지 업체, 영광 수협, 양식 기자재 업체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형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다.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테스트베드 양식 시설의 운영·관리자인 민간 사업자를 전국 최초로 공개 모집 방식을 통해 선정하기도 했다.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핵심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자 한다. 영광군의 미래 양식 산업의 혁신 성장과 전 국민이 맛있는 영광 굴비를 부담없이 즐기게 하기 위해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고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칼럼

당뇨병과 당뇨 망막증

문귀형
보라안과병원 원장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수 진성의 '보릿고개'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듣기엔 우스갯소리 같은 이 말은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를 넘는 사람들에게는 진지한 나무람이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탄탄하고 날씬한 몸매를 갈망하고,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숙제 아닌 숙제가 된 지 오래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식탁은 풍성해지고, 입맛 역시 서구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와 함께 한국인이 잘 걸리는 질병의 리스트 역시 바뀌고 있는데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는 물론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당뇨병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320만 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이다.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당뇨병 극복을 위해 제정한 날로, 실제 당뇨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내 당뇨 환자 또한 30세 이상에서는 일곱 명 중 한 명 이상일 정도로 쉽게 볼 수 있는 질환이 됐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이 특징인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사 질환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전신 합병증을 일으킨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질환 그 자체보다 합병증 때문인데 눈, 신장, 신경, 뇌·심혈관, 발 등에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생활과 활동을 불가능하게 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트린다. 특히 성인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당뇨 망막 병증은 당뇨병 환자의 19.6%에 이르며, 당뇨병이 생긴 후 15년에서 20년이면 거의 모든 환자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생긴다.

당뇨 망막증의 정도는 당뇨병의 기간과 비례해 오래될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데 말초 혈관의 순환 장애가 생기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혈관 장애가 계속되면 망막의 여러 부위에 산소 결핍 부위가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은 산소의 공급을 원활히 하여, 세포의 질식을 막으려고 산소 결핍 부위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이 자라게 된다. 신생 혈관은 정상적 혈관이 아니므로 자꾸 터지게 되고 신생 혈관을 따라서 새로운 섬유성 물질이 자라고, 이것이 또 혈관을 잡아당겨서 출혈을 일으키게 돼 결국 시력이 저하되게 된다. 문제는 당뇨 망막증 환자 열 명 가운데 두 명 정도는 실명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다.

초기 당뇨 망막 병증의 경우 비문증, 광시증,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침범이 없는 경우에는 시력도 정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력만으로 당뇨 망막 병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약물, 레이저, 유리체강내주사, 수술(유리체 절제술) 등으로 치료하는데 초기 심하지 않는 당뇨 망막 병증의 경우 혈당 조절을 통한 생활 습관 관리와 약물 치료로 진행을 억제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망막 중심부인 황반 주변부에 미세 혈관이 손상되면서 황반부종이 발생하면 레이저 치료와 항체 주사 치료가 필요하다. 유리체 내에 출혈이 심하거나 망막 박리가 발생해 증상이 심각해지면 최후의 수단으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한다.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당뇨 환자들 중 안과 정기 검진을 받지 않고 지내다가 증상을 느끼고 찾아왔을 때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당뇨가 완치되지 않는 것처럼 당뇨 망막 병증도 한번 발생하면 치료를 받더라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발병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어 조기 진단을 위한 안저검사가 필요하다.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으로 혈당 및 혈압을 조절해 당뇨 망막 병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더라도 당뇨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다. 때문에 당뇨 망막 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다.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면 즉시 안과 검사를 받아 보고, 당뇨병이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검진을 받길 당부한다.

社 說

내년 시도 예산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15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6조 2817억 원 규모로 사회복지·보건(39.1%)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26.1%), 교통·물류(18.1%)가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올해보다 24.9%가 증액된 1조 1546억 원이 책정됐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3734억 원, 11대 대표산업 육성에 1238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그중 눈에 띄는 부분은 출생 육아수당으로 488억 원을 새로 책정한 점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소진된 재해·재난 대비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711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전남도의 내년 예산안은 총 9조 2023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보건복지(32.9%), 농림 해양(21.8%) 분야의 비중이 높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블루 이코노미 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경제 분야에 3677억 원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및 사회복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9개 분야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한다. 신규 시책으로는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급과 5·18 민주유공자 및 참전용사 명예수당 등이 눈길을 끈다.

시도가 편성한 예산안은 시도의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도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예산안 분석을 통해 낭비성 요소부터 줄임으로써 시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도의 내년 예산은 무엇보다 코로나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비상 속 수능시험 대비 철저히 해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험생들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예년에 비해 늦은 12월에,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치르게 됐다. 수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 당국과 교사,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 모두 사상 초유의 수능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사흘 전 광양의 한 고교 교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더욱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 등 57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해당 학교 1학년에 대해 2주간 원격수업을, 2·3학년에 대해 정상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한편 확진자와 접촉한 일부 학생은 자가 격리 조치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등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수험생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시험실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된다. 수험생들은 손 소독과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거쳐 입실하게 된다. 또 신분 확인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올해 수능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수험생 대상 거점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야 한다. 또한 시험지구별 2개 내외의 격리 수험생 대상 별도 시험장을 확보해 운영한다. 시험 당일 단순 감기 등으로 인해 고열을 보여도 유증상자로 분류돼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코로나 비상 속에서도 올해 수능이 아무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험생들 역시 남은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시험 당일 여분의 마스크를 챙기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아파트 거품

온 나라가 아파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격이 폭등해서, 전세가 없어서, 세금이 올라서. 이유도 가지가지다. 도시는 아파트로만 채워지고 있는데, 왜 서민들은 살 집을 얻지 못하는 것인지? 아파트 가격은 왜 자고 나면 오르는 것인지?

정부가 보유세를 늘리고, 대출을 규제하며, 투기 단속에도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여전히 건설업체나 투기세력 그리고 일부 공인중개업체들이 아파트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땅과 집값의 경제학'(2017년)의 저자 조시 라이언 콜린스 등은 주거용지의 가치가 금융자산이나 소득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택이 담보 대출로 '금융화'되고, 강력한 돈벌이 수단이 되며,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로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시중 자금이 '불패 아파트'로 쏠리면서 가격의 이상 급등을 이끌고 있다. 전세는 저금리 시대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세입자나 무주택자는 아파트를 살 것인지, 아니면 월세로 갈아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과 공급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거품'이 가득한 아파트를 구매할 수도, 대출 금리보다 부담이 큰 월세를 낼 수도 없는 이들의 불만은 높아만 간다.

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사회주택(Social Housing) 같은 다양한 주체가 아니라 오로지 민간 건설업체만이 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민간 분양 시스템마저 제멋대로 운용되면서 '로또 아파트'라는 기괴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시장에 대한 공공의 개입, 다양한 주택 공급 루트 마련, 수요자 중심의 분양 시스템 구축 등이 급선무다.

이런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는 건설업체들에게 공원·공유지·공업지역 등을 아파트 부지로 내주고, 그 일부 수익으로 공공사업을 하려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대표적이다. 녹지·공장·학교부지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너무나 쉽게 용인해 주는 것이다. 공공이 오히려 '쪗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아파트 문제는 참으로 해결 난망이다. /윤현석 정치부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